

감만동 동향초등학교 개교 100년



1951년 미군이 촬영한 동향초등학교와 감만동 일대. 아래 사진은 현재의 동향초등학교.

감만동 동향초등학교가 4월 1일로 개교 100주년을 맞았다. 1900년대 남구는 농어촌 지역으로 도상에서 멀리 떨어진 소외된 지역이었다. 부산북항 동쪽 해안가에 위치한 감만동은 1850년 무렵 형성된 마을이다. 감만분동에는 주민들이 세운 초등학교로, 1911년 당시 일제의 설립인가가 난 석남서당이 최영 장군 사당인 무민사 근처에 있었다. 여기서 한문의 초보와 습학을 가르쳤다. 그러다가 일제 강점 후 서양 신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이곳 선각자 김삼갑, 김은술 선생 등의 제안으로 4개월간 동내유지들을 설득해, 1919년 4월1일 4년제(1928년 6년제로 바뀜) 근대교육기관인 사립 배영의숙이 설립되었다. 동향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역사는 1919년 조선인이 세운 배영의숙부터 시작된다.

당시 주민들이 직접 해안가 모래구찌에서 모래를 운반해 와 한옥으로 교실 1실을 지었으며 나중에 교실 1실을 더 만드는데 당시 비용으로 '1,000원'이 소요됐다. 한옥으로 지어진 건물로 몇었었다고 한다. 위치는 지금 동향초운동장 일부와 감만주차장 자리(옛 교장사택부지)이다. 교육과정은 수산, 조선어 및 한문, 일본어, 산술, 이과, 장가, 체조, 도화 등이다. 졸업생은 1회부터 15회까지 배출하였으며 20년간 운영되었다. 이 학교 13회 졸업생인 박상수씨는 1935년 졸업할 당시 남학생 7명, 여학생 2명 등 졸업생수가 9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일제의 감시나 통제가 있었지만 감만동 뿐만 아니라 문현, 용당, 우암, 용호동에서 걸어다니는 학생들도 있었다하며 학비는 월 80원 정도로 그 당시 비싼 학비였다고 한다. 졸업생인 장계근씨(1920년생)는 배영의숙 교가(작사 전운영, 작곡 김명술)를 기억하고 있었다. 가사는 이렇다. 대조선 남단에 비취은 이곳/ 뒤에는 부산이요 앞에는 동해라/ 이땅에 터 닦아서 세운 이집은/ 배달의 귀한 자리 길러낸단다/ (후렴) 동무야 사라지고 일어나거라/ 동무야 노래 불러 축복합시다/ 배영배영 만만세 축복합시다(1절)

1936년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미나미(南



남구 최초 100년... 졸업생 2만1139명 배출
신교육 필요성 깨달은 마을 주민들이 설립
주민들이 모래 운반해 한옥 교실 직접 건축
6.25때 미군부대·피난민에 교사 내주기도

次郎)는 조선 미나미 총독은 조선인을 일본인화하는 황국신민화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선인교사가 학생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하여 조선인이 세운 사립학교를 폐교시키고 졸업대장도 남기지 않고 공립으로 전환시켰다. 1939년 일제에 의해 배영의숙이 폐교되고 그 건물에 일본인에 의해 부산진공립심상소학교 적기분교장이 설치, 운영되었다.

1942년 4월 1일 일본인이 지은 2층4교실로 된 신축건물에 6년제 부산적기공립국민학교로 4학급을 편성하여 개교하였다. 본교 7회 졸업생인 장성준씨는 당시 수업시간에는 일본말로 했으며 학교 선생님은 전부 일본인이다. 그리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반씩 편성되었다. 직접 만든 짚신을 신고 다녔으며 일본글로 된 책 1~2권을 전조각으로 맡아가지고 다녔다. 그 당시 용호, 용당, 우암, 감만 4동에 또래가 다 모였다고 한다.

1945년 9월 해방직후 2대 최현국 교장이 부임하여 부산동향공립국민학교로 개칭하고 8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1950년 부산동향국민학교로 개칭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동향국민학교 6교실에는 미군부대가 들어섰고 나중에 피난민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군부대는 학교를 피난민에게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먼저 온 피난민들은 교실을 차지하고 나중에 온 피난민들은 종이나 형상으로 만든 텐트로 운동장을 가득 채웠다. 1951년 3월 가교실 6동을 확보하여 피난학생을 수용하였다. 그리고 돌산건설국창고를 5교실로 개조하여 본교생 교실로 활용하였다. 신산대분교실과 우암분교실은 서울 서강국민학교에 빌려주었다.

이 시기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미군 케네스 레(Kenneth H. Lehr) 씨가 찍은 감만동을 배경으로 한 귀중한 칼라사진이 2011년도에 공개되어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었다. 피난민 정착과 도시화, 산

동향초등학교 연혁

1911.3.31. 석남서당 개설
1919.4.1. 배영의숙 설립(동향초등학교 시작)
1923.3.25. 4년제 제1회 졸업식
1928년.3.25. 6년제 승격
1939.3.28. 일제 강요에 의해 배영의숙 폐지
1942.4.1. 부산적기공립초등학교 개교(4학급)
1943.3.23. 제1회 졸업식(졸업생 25명)
1950.6.1. 부산동향국민학교로 개칭
1996년.3.1. 부산동향초등학교로 개칭
2019년.2. 제77회 졸업식(졸업생 누계 2만1139명)

업화로 인한 인구증가로 1959년 우암초등학교, 1965년에는 용당국민학교로 분리, 개교하였다. 1966년 석포국민학교로 5학급이 분리되고 1982년 동천국민학교가 16학급으로 분리, 개교하였다. 2014년 동향역사관 개관 및 향토지 '아름다운 감만동'을 발간하였고 2016년 학교와 주민들의 염원인 매머드급 강당 라온관을 개관하였다.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 동향초등학교는 2019년 2월 제77회 졸업식을 가져 총 21,13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현 부산광역시 김석준 교육감이 우리 학교 27회 졸업생으로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부산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자랑스롭다.

끝으로,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 동향초등학교는 역사와 전통을 밑거름으로 새로운 한 세기를 이끌어 갈 4차 산업혁명시대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동향교육공동체 모두가 힘을 모아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펼쳐 변화하는 동향초등학교의 미래를 기원한다.

이규섭(전 동향초등학교 교장·24회 졸업생)

학교 소식

한얼고 3·1만세운동 플래시몹 행사

문현동 한얼고등학교(교장 손하섭)는 3·1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지난 3월 1일 학생 320여명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3·1운동 플래시몹 행사를 가졌다. 이날 학생들은 운동장에 모여 양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목청껏 외치며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대연고 학부모총회 성료

대연고등학교(교장 김영도)는 새학년을 맞아 시청각실에서 학부모를 초청해 본교의 교육 방침을 설명하는 학부모총회를 지난 3월 20일~22일 사흘간 학년별로 개최했다. 학습·생활지도 외에 2020학년도 입시제도 및 학년별 학습계획 등도 설명했다.

해군ROTC 합동임관식 부경대 출신 1~3등 싹쓸이

부경대 해군학군단(ROTC·단장 박순규 대령)이 전국 해군학군단 졸업생 중 우수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1~3등상을 모두 휩쓸었다. 지난 3월 6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학군장교 합동임관식에서 부경대 해군학군단 64기의 성현민 소위(경영학부)가 대통령상, 정재혁 소위(경제학부)가 국무총리상, 반아현 소위(수산생명의학과)가 국방부장관상을 받았다.

부산항만물류고→동명공업고 교명 변경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의 부산항만물류고등학교가 지난 3월1일부터 학교 명칭을 동명공업고등학교로 변경했다. 1978년 동원공업고등학교로 개교한 이 학교는 1985년 동명공업고등학교, 1995년에 동명정보공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꿨다. 2010년 항만물류분야 특성화학교로 지정되면서 교명을 부산항만물류고등학교로 바꾼 뒤 이번에 다시 동명공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

동천고 인문학당 토론문화 정착에 기여

지난해 처음 시작한 동천고등학교의 '동천 인문학당'이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동천 인문학당은 매달 한두차례 강연자가 학생들에게 책을 소개하고 그 책에 관해 토론하는 동천고의 특색 프로그램이다.



올해도 기존 포맷을 유지 및 발전시켜 학생들이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 줄 뿐만 아니라 교내 토론 문화 정착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강의는 주로 목요일 방과 후에 교내 도서관에서 열리며 교장선생님을 포함해 교내 선생님들이 강연자로 나선다.

부산경영고 2020년 미용과·디자인과 신설

부산경영고등학교에 2020학년도부터 기존의 금융과와 창업경영과가 사라지고 미용과와 디자인과가 신설된다. 미용과는 부산 지역 특성화고에서는 첫 사례다. 학교 측은 현재 교명 변경 등 학적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7월 말부터 미용과와 디자인과 학생들을 위한 실습실 공사와 기자재 선정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635-2291

부산세무고 중학생 진로체험 교실 운영

부산세무고등학교에서 중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학과 체험, 동아리 체험)을 4~11월까지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매월 셋째주 금요일 1시 30분~3시 30분 교내 학부모화실에서 진행한다. 프로그램 문의 630-0217. 한편 부산세무고등학교는 2019학년도 학사일정, 교육과정, 평가안내, 취업 및 진학 안내 등을 알리는 학부모 설명회를 지난 3월 21일 가졌다. 학교는 지난해 공개일 2명(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금융권 3명(국민은행, 우리은행, NH투자증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4명, 세무법인 14명, 관세법인 8명 등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한국조형예술고 도자기·수채화 강좌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가 지역주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4월부터 도자기 및 수채화 강좌를 시작한다. 지난 2014년 시작된 이들 프로그램은 지역주민과 학부모에게 문화예술의 체험과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적 감성과 정서적 소양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620-2732

댄스의 명가! 디엘댄스스쿨

●대인봉사반

구분	시간	수강료
라틴반(자이브, 룸바, 차차치)	월·수·금 10:30~11:30	월
모던반(왈츠, 탱고)	월·수·금 11:30~12:30	3만원

●경력자반

구분	시간	수강료
왈츠	화·목 10:30~11:30	월
탱고&라틴모던들기	화·목 11:30~12:30	5만원

4월 1일 개강 및 모집
051)624-9399
유령강사 직접강의 (대상: 선수 및 일반인)
한국 최고의 강사 직접 강의!

한국댄스스포츠

댄스회원 수강생 수시 모집

■ 4월 오픈 강좌

요일	시간	과목	수강료
화·목	11:00~12:00	월빙댄스	3만원
수·금	11:00~12:00	댄스스포츠(자이브, 룸바, 왈츠, 탱고)	3만원

※ 자유회원 모집(월 2만원)
댄스를 좋아하시는 분은 시간 관계 없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대연동 못골시장 롯데리아 4층 **한국댄스스포츠**
010-3589-0646 / 010-4550-2549

무료교육 남부야학

성인수강생수시모집

한글 기초반 : 성인문해교육

중.고등부 : 중.고등 김정준비반

스마트폰 활용 수강생 (화,금10-13시)

48년전통의 비영리민간단체 **남부야학**

문현3동 주민센터 인근 가월밤상 지하1층
☎622-1205/010-4543-4746

우레탄방수전문업

시공은 꼼꼼하게~ 가격은 저렴하게

방수상담 010-3563-0600

시공후~A/S~3년콜

유료광고

고품질 장례문화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내부모 형제처럼...”

MOU협약단체에는 **특별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배도성

· 남·수영구 주민 **빈소 50%할인**
·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는 빈소 무료 (일반실에 한함)
장제비(교인용품)는 50만원으로 행사를 치러드립니다.

BHS 수영한서병원 장례식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15 (평안동) T. (051)751-1860~1

BHS 동래한서병원 장례식장
(구 동래백병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21 (부곡동) T. (051)582-1041 (041 병사재)

기장병원 장례식장 T. (051)724-1024

S2 FLOWER 에스더 플로어
계단식식전문/근조, 축하화환, 화분
T. (051)627-4880 F. (051)622-1045